

↑ 코스피	↓ 코스닥
2623.29	770.26
(+26.38)	(-0.72)
↓ 금리 (연율)	↑ 환율 (원/달러)
2.938	1357.85
(-0.009)	(+8.35)

‘실적부진’ 재계, 칼바람 분다... 고강도 인적쇄신 예고

삼성전자, 내달 인사 가능성
반도체 사장단 개편 불가피
LED사업 철수 등 사업 개편도

‘脫통신’ 통신사, 구조 효율화
KT, 6000명규모 인력 대수술
SKT, 희망퇴직 유도 격려금 ↑

재계 주요 그룹들이 조직개편을
강화하고 고강도 쇄신 작업에 속도
를 낼 전망이다. 삼성전자부터 통신
사들까지 비핵심 사업을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
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부진 여
파로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이 ‘반성문’을 내놓
은 만큼 쇄신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네트워크 부문 인력을 재
배치하고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등
6000명 규모의 인력구조 대수술에
들어간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들은 올해 정기인사를 한달 가량 앞
당겨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전자는 그동안 12월 초 조직 개편을
단행해 왔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빠른 11월 말에 인사를 단행할 가능
성이 제기된다.

이는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부
진 여파로 전 부회장이 이례적인 반
성문을 발표했던 만큼, 대대적인 내
부 물갈이를 통해 본격적인 쇄신 작
업에 돌입할 것이라 관측이 높다.



군, 화력대기태세 강화

김명수 합참의장이 14일 서해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천안함을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중심 인력 손질

삼성전자의 연말 조직개편은 반
도체 사업부를 중심으로 단행될 전
망이다.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사업
이 고전한 영향이 실적 악화 등의
원인으로 꼽힌 만큼, 반도체 사장단
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
이다.

실제 3분기 실적 발표 직후 삼성
전자의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
장)은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기대
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하
서까지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

례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현재 반도체사업부 사장단은 전
영현 부회장을 필두로 이정배 메모
리사업부 사장, 최시영 파운드리 사
업부 사장, 박용인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장, 남석우 제조&기술
담당 사장, 송재혁 최고기술책임자
(CTO) 겸 반도체연구소장 등이다.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가 최근 반
도체 사업 개편 작업에도 돌입했다
는 점이다. 비핵심 분야인 발광다이
오드(LED)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
은 물론 해당 LED 사업팀은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 기존의 LED 사
업인력은 메모리와 파운드리에 재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수뇌부를 향한 책임
론도 고강도 쇄신 작업에 힘을 싣고
있다. 삼성의 최근 위기에는 ‘리더
십 부재’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
다고 재계는 내다봤다. 한 재계 관
계자는 “최근 삼성의 위기는 단기간
에 실적 개선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말 인사 때 이재용 회
장이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할 것으
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사 희망퇴직 칼바람... KT 6000여명 조정

통신사들도 최근 희망퇴직과 자
회사 재배치 등을 통해 조직개편 작
업에 착수했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4 제약 & 바이오포럼’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 반려동물 위한 헬스케어

<메트로경제>가 10월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를 주제로 ‘2024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증가 추세입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했고, 2023년엔 전체 인구의 30% 가량인 15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2021년 3조4000억원에서 2027년 6조원 규모로 급팽창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계청에서는 2020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란 질문을 새로 추가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 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을 위한 음식과 건강관리식품에서부터 치료제,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상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반려동물이 사용하는 치약, 샴푸와 같은 세정제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치료제가 동물에게 안전한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2024 제약&바이오포럼을 통해 반려동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계와 관련 산업계의 기술동향을 점검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계뿐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가구에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24제약&바이오포럼
- 일시 : 2024년 10월 23일 오후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제 :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 기조강연 :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
- 강연 :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 최진식 그라스메디 대표이사 이진환 지엔티파마 박사 경현태 아우라케어 대표이사 유성기 애니멀프리이니셔티브 대표 임윤지 VIP동물의료센터 암센터원장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4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영풍·MBK, 고려아연 지분 5% 이상 추가 확보

MBK연합,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 고려아연 “임의적립금 사용은 배임”

MBK파트너스와 영풍(이하 MBK연합)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5% 이상을 확보했다.

14일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첫 번째 분수령인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결과 지분 5% 이상을 확보했다. MBK연합은 추가 지분을 확보하면서 기존 약 33%의 지분에 더해 총 38%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달 13일 공개매수에 돌입한

지 한달 만이다. MBK연합은 당초 최소 6.98%에서 최대 14.61%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달성에는 실패했다.

MBK연합은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을 30%대 후반으로 늘리고 추후 이사회 장악, 주주총회 표 대결 등에 대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고 고려아연이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인만큼 타 주주들의 의결권 비중이 높아져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MBK연합의 공개매수에 맞서 경

영권 수성에 나선 고려아연은 이날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는 철회, 중지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MBK연합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는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현재 진행되는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임의적립금을 활용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

이며 향후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불리하다는 주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라며 “고려아연은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며 이또한 지난 2일 법원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MBK연합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없는 법적 공방을 만들어 수많은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여러 차례 경고한 시장교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성운 기자 ysw@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李 “조국, 부산 지원유세 감사... 야권 후보 승리, 매서운 민심 회초리” /사진 뉴스1
- ▲한동훈 김건희 라인 쇄신 요구에... 권성동 “대표실부터 인적 쇄신하라”

- ▲김재원,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신중해야... 보수 분열 두려움”
- ▲대통령실 “용산엔 오직 대통령 라인 뿐... 여사라인이 어디 있나”



- ▲오세훈 “명태군, 울음 운운 가소롭다... 대가 치를 것” /사진 뉴스1
- ▲북한, 경의·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군 “오늘도 폭파 가능”